

력사소설창작에서 예술적허구를 활용한 극적인 인물관계조직

백 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극적구성에서는 인간관계를 똑똑히 설정하는것이 기본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83페이지)

소설문학에서 인물관계는 사회생활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의 실무적이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소설의 인물관계는 일정한 인간학적문제를 안고있는 인물들의 호상관계이며 극적으로 엮힌 관계이다.

소설창작에서 인물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작품의 주제사상을 형상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고 사회적모순들을 정확하게 그려내며 작품의 견인력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인물관계조직에서 예술적허구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력사소설의 인물관계조직에서 예술적허구를 잘 활용하여야 하는것은 력사사료를 소재로 하고있는 력사소설 그자체의 고유한 형태적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기때문이다.

력사적으로 전해져오는 정사나 야사, 구전자료들에 기초하여 창작되는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적사실 그자체는 충분한 생활자료로 되지 못한다.

작가에 의하여 선택된 실재한 생활자료로서의 소재에는 인간의 운명문제의 싹과 함께 극적인 요소가 내포되어있으며 구체적이고 생동한 인물 및 생활세부들이 포함되어있다.

대체로 이런 가치있는 소재는 작가의 현실체험이나 취재를 통하여 얻어진다.

그러나 력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취급하는 소설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이런 소재를 잡는데서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아무리 력사자료에 기초하여 간접취재를 한다고 하여도 그 제한된 취재자료만을 가지고서는 훌륭한 력사소설을 창작할수 없다.

력사적인 인물이나 력사적인 사건에 대한 자료는 다같이 그 당시의 지배계급과 력사가들의 관점에서 보고 평가기록된것으로 하여 력사발전에서 논 인민대중의 역할이 무시되고 사대주의적경향 등 심각한 제한성들을 가지고있다.

인간관계의 면에서도 력사자료들이 계급 및 계층인물들의 사회계급적모순과 충돌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은 아니며 특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소 인물들의 행적만이 남아있을뿐 당시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필요한 광범한 인물들의 자료는 결여되어있다.

이로부터 력사소설창작에서 예술적허구를 효과있게 활용하여 해당 시대의 사회계급적관계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보여주자면 문학적과제를 안고있는 극적인 인물관계를 잘 조직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먼저 예술적허구를 활용하여 작품에서 제기한 기본문제를 깊이있게

해명할수 있도록 인물관계를 극적으로 맺어주어야 한다.

역사소설에서 인물관계는 역사적사건과 당대 사회관계에 기초하면서도 주체적관점에서 재조직되어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확고하게 담보할수 있게 되어야 한다.

작가가 역사자료들을 깊이 연구분석하여 의의있는 문제를 발견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인물들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옳게 풀어내지 못하면 역사적경험과 교훈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독자들에게 안겨줄수 없다.

소설의 인물관계는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수 있게, 주제가 의의있게 해명될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나 흥미위주의 일화목록식으로 형상될 가능성이 있는 역사소설에서는 주제탐구작업을 선행시킨데 기초하여 그 주제를 형상적으로 펼쳐보일수 있게 인물관계를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실재한 역사적인물들을 기계적으로 소설에 등장시킬것이 아니라 주제해명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성격을 규정지어주고 그들의 호상관계를 인생관에 관한 관계로 맺어주어야 하며 주제해명에 필요한 허구적인 인물들도 등장시켜야 한다.

장편역사소설 《갑오농민전쟁》에서는 허구적인 인물관계의 설정으로 작품의 주제를 깊이있게 해명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오상민은 작가가 해당 역사적사건을 깊이있게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설정한 허구적인 인물이며 그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인물관계도 역시 허구적인 관계이다.

장편역사소설 《갑오농민전쟁》과 관련한 역사자료에 실지로 남은 인물은 전봉준이다.

반동사자들은 갑오농민전쟁을 전라도지방의 천도교인들이 개별적인 지방봉건관료의 무지막지한 억압과 수탈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동학란》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주체사관의 견지에서 갑오농민전쟁을 재평가한데 기초하여 이 역사적사건을 어느 제한된 지역에서 교과적인 목적에 의하여 일어난 소요가 아니라 봉건통치배들의 야만적인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나라의 복잡한 정세를 악용하여 침략의 마수를 뻗치던 일제놈들의 침략을 반대하여일떠선 투쟁으로 정확하게 형상화할수 있도록 인물관계를 조직하였다.

작가는 역사적으로 실재한 인물인 전봉준과 함께 허구적인물로서 평민출신의 오상민을 다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라도 고부군의 인민들이 당시 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과 학정이 극도에 달하여 들고일어난 역사적사실의 경위와 일제와 청나라의 개입 등 갑오농민전쟁의 동기와 전말을 거대한 화폭으로 펼쳐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주인공설정은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으며 그 투쟁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이라는것, 자주적존엄을 위한 투쟁에는 그 선각자가 있어야 하며 옳은 정도자를 모시지 못했을 때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 작품의 주제사상을 보여줄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인물관계로 된다.

작가가 탐구한 주제해명에 이바지되도록 예술적허구를 활용하여 인물관계를 의의있고 극적으로 설정한 경험은 장편역사소설 《높새바람》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작가는 작품에 농쇠라는 허구적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인민들의 애국심과 반일정신, 그들의 소박한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종반정, 삼포왜란과 관

런한 역사적인물자료를 폭넓게 연구분석하면서 류순정과 리우증에 대한 사료가 외곡되었음을 간파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재평가하여 극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주었다.

작품에서는 삼포왜란의 발발동기와 사건전말을 보다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줄수 있도록 역사에 기록된 삼포왜란의 관련인물이 아니라 납쇠라는 허구적인물을 중심인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인물관계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소설의 주제해명에 복종될수 있도록 리우증, 류순정이라는 두 인물사이에도 허구적인 극적관계를 맺어주었다.

력사기록에는 부산첨사 리우증과 령의정 류순정사이의 아무런 련관관계도 전해진것이 없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삼포왜란의 관련인물들인 이들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중중반정이라는 또 하나의 사건에 합류하는 인물들로 련결시키였다.

주인공 납쇠의 아버지가 왜촌철거사건으로 하여 귀양살이를 하던 리우증의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 죽은것으로 설정하여 그들이 애국심과 중오심의 공통성으로부터 한배를 타게 설정하였으며 류순정과 주갑룡 등은 납쇠와 리우증의 개인적원썬로, 왜놈들에게 제 나라 땅마저도 섬겨바치려는 역적들로 형상하였다.

이렇게 애국과 매국이라는 심각한 극을 내포하고있는 허구적인 인물관계를 설정한 결과 과연 누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운 애국자인가 하는 작품의 주제에 깊이 있는 해답을 줄수 있었다.

력사소설창작에서 문학적과제를 안고있는 극적인 인물관계를 조직하자면 다음으로 예술적허구를 활용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킬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맺어주어야 한다.

인물의 남다른 개성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지만 극적인 정황과 인물관계속에서는 뚜렷하게 부각된다.

극성이 강한 인물관계일수록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주인공과 극적인 관계로 맞물려야 한다.

력사적사실자료에는 극히 부분적인 극적관계들이 암시되어있으므로 작가는 소설의 극성을 높이고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허구적인 인물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장편력사소설 《작풍》에서는 실재한 역사적인물들사이의 관계를 극적으로 잘 맺어주었다.

작품에서는 조선봉건왕조의 단종시기 수양대군에 의한 왕위찬탈음모와 단종을 왕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단종복위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에 실재한 인물들의 관계를 극적으로 맞물려놓았다.

여기서 가장 이채를 띠는것은 바로 주인공 성삼문과 신숙주와의 관계이다.

성삼문과 신숙주는 다같이 세종왕시기부터 왕을 받드는 집현전의 학사들로서 충신으로 떠받들리우던 인물들이였다.

그러던 그들이 수양대군에 의하여 일어난 반정시기에는 충신과 간신의 전형으로 서로 상반되는 이름을 력사에 남기게 되였다.

주인공 성삼문은 변함없는 《충의지심》을 지켜 충신의 삶을 마쳤지만 신숙주는 자기와 가정의 운명을 신하의 도의보다 더 값높이 사서 간신으로 력사에 오명을 남겼다.

작품에서는 이 두 인물의 호상관계를 극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들어 충신과 간신의 성격이 보다 날카롭게 대조부각되도록 하였다.

작품에 그려진 성삼문과 신숙주와의 관계는 다같이 선왕들의 믿음을 받아안고 살아온 그런 관계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깊이있게 얹힌 관계이다.

성삼문의 딸 갓난이와 신숙주의 아들은 서로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성삼문과 신숙주의 태도는 서로 상반되며 그로 인한 마찰은 자식들의 혼례 문제에까지 미쳐 더욱더 첨예한 성격을 띤다.

봉건유교도덕을 중시하는 당시 봉건정부의 관료로서 자기 운명은 물론이고 자식들의 운명에까지 그들을 던지며 왕에 대한 충의를 목숨바쳐 지켜가는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은 바로 신숙주와의 이런 극적인 인간관계로 하여 전면적으로 개방된다.

이것은 력사에 단편적이며 일면적으로만 남아있는 력사적인물의 성격을 해당 시대의 전형적인물로, 개성이 뚜렷한 산인간으로 그려내자면 예술적허구를 활용한 극적인 인물관계를 발견하여 맺어주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력사소설창작에서 문학적과제를 안고있는 극적인 인물관계를 조직하자면 다음으로 극적견인력을 보장할수 있도록 예술적허구를 활용하여 인물관계를 극적으로 잘 맺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력사소설의 인물관계를 단순히 해당한 시대관계의 기계적인 반영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문학적이야기, 인간학적인 극적인 이야기를 낳을수 있는 인물관계로 조직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관계발전과정이 곧 이야기줄거리를 이룬다. 따라서 이야기줄거리의 흥미여부는 인물들의 극적관계의 발견과 그 발전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작품들에서 작가가 말하자고 하는 사회적문제는 의의가 있으나 소설이 생경하고 따분한 경우가 있는것은 작품에 문제성만 있고 극적인 인간관계가 없기때문이다.

의의있는 주제가 내포되어있는 인물관계라고 하여도 그것이 극적인 사건을 낳을수 있는 전제로 되지 못한다면 문학적인 인물관계라고 말할수 없다.

장편력사소설 《개화의 러명을 불려》에서는 주인공 김옥균과 애정관계에 놓여있는 조옥화의 인물선을 탐구함으로써 소설의 견인력을 더욱 높이고있다. 즉 그들의 애정선을 통하여 김옥균의 다정다감한 성격과 높은 리상, 포부 등을 풍부하게 정서적으로 그리고있으며 애인을 시녀로 빼앗긴 뒤에 겪게 되는 주인공의 비애와 분노, 그 모든것을 개화의 대업을 위해 묵묵히 이겨가는 생활들을 통하여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로서의 그의 성격적특성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옥화의 운명선에 대한 주인공 김옥균의 강렬한 체험은 그로 하여금 개화의 길에서 물러설수 없게 하는 생활적바탕으로, 소설의 극적견인력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장편력사소설 《울릉도》에서도 예술적허구를 활용하여 안룡복과 그의 약혼녀 어순의 관계를 설정해줌으로써 소설의 견인력을 비상이 높이고있다.

력사기록에는 안룡복이 42살의 중년남자로서 40여명의 어부들과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표류되어 울릉도에 닿게 되었으며 그때 울릉도에서 어물을 도적질하던 왜놈들이 안룡복의 한명을 쓰시마로 신고갔다고 써여져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안룡복의 쓰시마행을 우연적인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주동적인 행동으로 보고 그것을 생활적으로 안받침해줄수 있는 곡절 즉 왜놈들의 략치로 인한 사랑하는 애인 어순이의 행방불명이라는 사건을 쓰시마단행의 전제로 제시해주고 그를 홍안의 청년으로 설정하여 어릴적부터 울릉도에 꿈을 두고 함께 자란 어순이를 찾기 위하여 쓰시마로 단행하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이리하여 안룡복은 어순이를 찾기 위하여 애쓰게 되였고 이 과정에 울릉도를 지키는 것이 어순이와 자기뿐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하나로 잇닿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막부의 서계냐, 아니면 애인을 구원하는 길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어순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안룡복을 막부의 서계를 받아내고 울릉도를 지켜내는것으로 형상화할수 있었다.

보는바와 같이 허구적으로 설정된 안룡복과 어순이의 곡절많은 애정선은 작품의 강한 극적견인력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력사소설창작에서 극적인 인물관계를 발견하고 맺어주는것은 력사사료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함께 작가의 남다른 예술적환상과 허구활용능력에 기인된다.

현시기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우수한 민족성을 옹계 인식시켜줄수 있는 력사물주제 작품창작은 매우 중요하게 나선다.

창작가들은 력사소설창작에서 나서는 고유한 실천적방도들을 잘 알고 사상예술성이 높고 민족적색채가 짙은 우수한 력사소설들을 창작해냄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명작폭포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력사소설, 예술적허구